

##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과의 관계\*

김 정 남\*\* · 권 윤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에 이르러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의 물결은 개인과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역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아정체감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현시대는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물질문명화를 이루면서 Ogburn이 말한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자아정체감 확립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자기동일성에 대한 자각인 동시에 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 해답은 쉽사리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이 길어질 때 정체감혼미가 온다(Erikson, 1963). 특별히 청소년기에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과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Sho, 1995).

첫째, 신체발달, 성적성숙, 원초아·자아·초자아간의 균형상실 등의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이다. 둘째, 자신의 위치 및 역할 규정의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부딪쳐 오는 상충적인 사회요구들이다. 셋째, 진학, 취업, 직종선택 등의 청소년기는 선택이 요청되는 시기

이다. 넷째, 청소년기에 증대되는 인지 능력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자신의 심적 참조체계로써 간직해 왔던 이전의 동일시들이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Erikson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급격한 사회적·정치적·기술적 변화를 들었으며 급격한 변화는 폭발적인 정보에 의해 악화되며 불확실감·불일정감·단절감(과거, 현재, 미래간의 일관성 있는 확립시도의 어려움)과 같은 애매한 느낌을 조장한다(Lee, 1996)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Bang(1986)은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물질문명 속에서의 가치관 혼란, 사고의 침체, 자기소의, 삶에 대한 불안감, 참된 자기지각의 불가의 문제, Lee(1997)는 한국학생의 대부분은 너무나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자기 이해를 위한 자기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추구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과정에서의 혼란과 위기는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과 건강행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Kim(1986)은 자아개념이 높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다고 하여 자아개념을 높이거나 강화시키므로 청소년의 건강행위를 수행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Chung(1990)은 자아개념이 높으면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밀

\*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생연구 지원금에 의해 시행되었음.

\*\* 계명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계명대학교 석사과정

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여러 요인에 의해 개인 차가 나타난다. 그 개인차는 청소년의 적응(Waterman, 1982), 직업적 태도(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인지적·도덕적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Marcia, 1988).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 여러 요인 중 특히 가족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한 연구자들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과 결합된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친밀성 또는 애착이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Allison & Sabatelli, 1988; Josselson, 1988).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의 바람직한 형성은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라 재 정의되고, 재 협상되고, 재편성된 가족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다(Collins & Read, 1990; Steinberg, 1990).

특히 가족은 한 개인의 심리적 발달을 형성시키며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나 기본적 근원이 되므로 청소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들 자신만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족의 환경적인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속하며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이다.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가 없으면 청소년은 소외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소외감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1994, Kim).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일차적 원인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에 있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KIYD, 1994; Kim, 1993). 이와 같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행동은 가족체계의 문제, 총체적인 가족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안녕과 건강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WHO의 전문가 보고서에서 간호는 개인과 가족과 집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잠재력을 결정하고 성취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족이나 단체를 교육하고, 그들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고, 정서적인 정보 측면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WHO, 1996). 지역사회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간호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건강감시자, 간호제공자, 촉진자, 보건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들 수 있

다(KNA, 1992). 이 중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가족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정간호사업, 목회간호사업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목회간호사에게 대상자가 기대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상담은(Shin 등, 1996) 가족문제의 상담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간호사는 상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개인과 가족의 발달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문제, 특히 청소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대처방법을 교육시킬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나 가족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바람직하게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보건을 책임지는 간호사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학교내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대처방안을 학생, 친구, 가족을 상담하면서 적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체감 혼돈으로 발생 가능한 청소년 성문제, 10대 임신, 약물복용,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인 가족지지와 관련한 연구에서 만성 질환자와 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되어 왔으나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과 가족의 심리적인 문제의 하나의 대처방안인 가족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족간호와 학교보건, 더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정도와 자아정체감수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정도와 자아정체감수준을 파악한다.
- 2)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정도와 자아정체감수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 4) 청소년의 가족지지에 따른 가족지지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가족지지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지로서 대상자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사랑 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서적지지, 가치감을 갖고 존중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존중지지, 필요시 돈이나 물건 등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물질적지지, 대상자가 문제시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Cobb, 1976). 본 연구에서는 Cobb이론에 근거하여 Lee(1993)가 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 2) 자아정체감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아의식과 사회에서의 역할,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공유한다는 사회의식이 포함되며, Dignan은 자아정체감의 구성내용을 자아의식, 독특성, 자기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 관계 등을 내포한다고 하였다(Dignan, 1965). 본 연구에는 Dignan의 "Ego Identity Scale"을 Sho(1975)가 한국 학생들에게 알맞게 번안 제작하여 검토·사용한 자아정체감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인 것을 나타낸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와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계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대전시내에 있는 총 37개의 고등학교 중 2개의 학교를 무작위로 군집표집하여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로 1개 반씩 무작위로 표출하였다.

### 2. 연구도구

#### 1) 가족지지 측정도구

Cobb(1976)이론에 근거하여 Lee(1993)가 고등학생들에 맞게 수정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11문항으로 5점의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최저 11점, 최고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0.87이다.

#### 2) 자아정체감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는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Sho(1975)가 한국 학생들에게 알맞게 번안 제작하여 검토·사용한 자아정체감 척도이다. 번안 제작된 문항 수는 64개이며, 4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80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있다는 학생이 133명(57.1%)으로 없는 학생보다 더 많았다. 대상자의 가족형태는 핵가족 230명(98.7%), 대가족 3명(1.3%)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던 결과(Lee, 1993)와 비교해 볼 때 거의 핵가족화된 가족구조를 볼 수 있다.

대상자의 부모의 생존 여부는 양친 모두 생존이 153명(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중간이 86명(36.9%)으로 가장 많았다. 부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136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80명(34.3%)이었으며, 모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126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81명(34.8%)이었으며, 부의 교육정도에서는 없었던 무학이 10명(4.3%)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부모의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133명(57.1%), 그저 그렇다 75명(32.2%), 원만하지 않다 25명

(10.7%)으로 비교적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관계가 원만한 것이 많았다. 대상자의 부직업은 상업 및 사업이 99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모직업은 공무원 및 회사원이 8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부직업에서 무직 8명(3.4%)은 Lee(1993)의 연구에서 대상

자 552명에서 무직 7명(1.3%)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가장의 실업자가 늘어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대상자의 동거형태는 전 대상자가(100.0%)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	120	51.5
	F	113	48.5
Grade	First	77	33.0
	Second	80	34.3
	Third	76	32.6
Religion	Yes	133	57.1
	No	100	42.9
Economy	High	69	29.6
	Moderate	106	45.5
	Low	58	24.9
Large of Family	Small	230	98.7
	Expanded	3	1.3
Parents Alive	All Alive	153	65.7
	Only Father	39	16.7
	Only Mother	36	15.5
	All Death	3	1.3
	Separation	2	0.9
Birth Order	First	78	33.5
	Middle	86	36.9
	Youngest	53	22.7
	Only	16	6.9
Education of Father	Greater than baccalaureate	80	34.3
	High school	136	58.4
	Middle school	7	3.0
	Elementary school	10	4.3
Education of Mother	Greater than baccalaureat	81	34.8
	High school	126	54.1
	Middle school	9	3.9
	Elementary school	7	3.0
	Ignorance	10	4.3
Relation of Parents	Good	133	57.1
	Ok	75	32.2
	Not so good	25	10.7
Occupation of Father	Profession	26	11.2
	Employee of company or Public	88	37.8
	Commerce or Business	99	42.5
	Farming or Fishery	12	5.2
	Without occupation	8	3.4
Occupation of Mother	Profession	13	5.6
	Employee of company or Public	85	36.5
	Commerce or Business	66	28.3
	Farming or Fishery	8	3.4
	Without occupation	61	26.2
Living	With Parents	233	100.0

## 2. 가족지지원

대상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어머니 116명(49.8%)으로 어머니를 가장 신뢰하는 것은 기존 연구(Lee, 1993)와 일치하여 전통적으로 모성을 신뢰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어머니 113명(48.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는 형제 112명(48.1%), 어머니 104명(44.6%), 아버지 17명(7.3%)으로 형제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친구, 동료, 동기들의 또래문화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2> The source of family support (N = 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Family members whom the subjects trust most	Father	43	18.5
	Mother	116	49.8
	Brothers	72	30.9
	No Answer	2	.9
Family members whom the subjects to ask first	Father	30	12.9
	Mother	113	48.5
	Brothers	90	38.6
Family members whom the talk most	Father	17	7.3
	Mother	104	44.6
	Brothers	112	48.1

## 3.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의 평균은 39.99, 표준편차  $\pm 9.59$ , 최소값 26.00, 최대값 52.0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의 평균은 Lee(1993)의 연구에서의 가족지지 평균 40.26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수준 평균은 186.16, 표준편차  $\pm 45.60$ , 최소값 108.00, 최대값 240.00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family support scale and ego identity scale of subjects (N = 233)

characteristics	Mean	S. D	Minimum	Maximum
Family Support	39.99	$\pm 9.59$	26.00	52.00
Ego Identity	186.16	$\pm 45.60$	108.00	240.00

## 4.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의 관계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다.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r = .93, p = .00$ )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go identity

N = 233	
Ego Identity	
Family Support	.93**

\*\* $p < .01$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학년( $F = 3.35, p = .04$ ), 종교( $t = 6.39, p = .00$ ), 경제상태( $F = 9.14, p = .00$ ), 출생순위( $F = 27.61, p = .00$ ), 부의 교육정도( $F = 23.17, p = .00$ ), 모의 교육정도( $F = 28.70, p = .00$ ), 부부관계( $F = 2657.03, p = .00$ ), 가족형태( $F = -9.65, p = .00$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는 2학년(42.22)이 가족지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43.28) 학생이 종교가 없는(35.62) 학생보다 가족지지 정도가 높았다. 경제상태에서는 상(43.92)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출생순위에서는 맏이(46.52)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맏이가 중간, 막내보다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교육정도에서 부가 대졸이상(45.82)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가족지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모의 교육정도에서는 모가 대졸이상(46.51)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한(48.05)경우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가장 높았다. 가족형태에서의 가족지지 정도는 대가족(50.33)이 핵가족(39.8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종교( $t=6.20, p=.00$ ), 경제상태( $F=12.56, p=.00$ ), 출생순위( $F=22.85, p=.00$ ), 부의 교육정도( $F=10.37, p=.00$ ), 모의 교육정도( $F=20.69, p=.00$ ), 부부관계( $F=938.73, p=.00$ ), 가족형태( $F=-8.74, p=.00$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201.52) 학생이 종교가 없는(165.74) 학생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경제상태가 상(205.50)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출생순위에서는 맏이(216.48)가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정도에서 부,모가 대졸이상(204.87)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 부부관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한(223.30)경우가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고, 가족형태에서는 대가족(234.33)이 핵가족(185.5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가족지지원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 및 자아정체감 수준

대상자의 가족지지원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를 검증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사람( $F=3.08, p=.03$ ),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F=5.85, p=.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는 어머니를 신뢰(41.34)하는 경우가 아버지를 신뢰(41.09)하고, 형제를 신뢰하는(37.19) 것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서는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46.41)가 어머니(40.67), 형제(38.39)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보다 지각하는 가족지지 가 높았다.

대상자의 가족지지원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을 검증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사람( $F=3.30, p=.02$ ),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F=5.72, p=.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어머니를 신뢰(193.19)하는 경우가 아버지를 신뢰(190.32)하고, 형제를 신뢰하는(172.47) 것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서는 아버지와 가장 많

<Table 5> Family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 D	t or F	p	Scheffe
Grade	First	38.85	±10.03	3.35	.04	
	Second	42.22	± 9.20			
	Third	38.80	± 9.24			
Religion	Yes	43.28	± 8.10	6.39	.00	
	No	35.62	± 9.71			
Economy	High	43.92	± 8.98	9.14	.00	①)②,③
	Moderate	38.78	± 9.09			
	Low	37.53	± 9.93			
Large of Family	Small	39.86	± 9.58	-9.65	.00	
	Expanded	50.33	± 1.52			
Birth Order	First	46.52	± 4.93	27.61	.00	①)②,③
	Middle	36.90	± 9.57			
	Youngest	34.75	± 9.55			
	Only	42.12	± 9.22			
Education of Father	Greater than baccalaureate	45.82	± 6.36	23.17	.00	①)②
	High school	36.61	± 9.88			
	Middle school	32.00	.00			
	Elementary school	45.00	.00			
Education of Mother	Greater than baccalaureate	46.51	± 4.78	28.70	.00	①)②
	High school	36.84	± 9.94			
	Middle school	26.00	.00			
	Elementary school	32.00	.00			
	Ignorance	45.00	.00			
Relation of Parents	Good	48.05	± 2.18	2657.03	.00	①)②,③ ②)③
	Ok	30.37	± 1.85			
	Not so good	26.00	.00			

<Table 6> Ego identity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 D	t or F	p	Scheffe
Religion	Yes	201.52	± 37.40	6.20	.00	
	No	165.74	± 47.64			
Economy	High	205.50	± 43.48	12.56	.00	①>②,③
	Moderate	184.04	± 40.15			
	Low	167.03	± 49.03			
Large of Family	Small	185.53	± 45.55	-8.74	.00	
	Expanded	234.33	± 8.14			
Birth Order	First	216.48	± 25.03	22.85	.00	①>②,③,④
	Middle	167.13	± 45.85			
	Youngest	173.94	± 38.67			
	Only	181.12	± 66.60			
Education of Father	Greater than baccalaureate	204.87	± 41.06	10.37	.00	①>②
	High school	175.59	± 46.29			
	Middle school	148.00	.00			
	Elementary school	207.00	.00			
Education of Mother	Greater than baccalaureate	212.97	± 28.37	20.69	.00	①>②
	High school	173.98	± 48.13			
	Middle school	122.00	.00			
	Elementary school	148.00	.00			
Relation of Parents	Good	223.30	± 12.85	938.73	.00	①>②,③
	Ok	139.68	± 20.20			
	Not so good	128.16	± 5.08			

<Table 7> Family support and ego identity by the source of family support

(N=233)

characteristics	Family Support				Ego Identity		
	N(%)	Mean	F	p	Mean	F	p
Family members whom the subjects trust most							
Father	43(18.5)	41.09	3.08	.03	190.32	3.30	.02
Mother	116(49.8)	41.34			193.19		
Brothers	72(30.9)	37.19			172.47		
No Answer	2(.9)	39.00			182.00		
Family members whom the subjects talk most							
Father	17(7.3)	46.41	5.85	.00	215.29	5.72	.00
Mother	104(44.6)	40.67			189.91		
Brothers	112(48.1)	38.39			178.26		

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215.29)가 어머니(189.91), 형제(178.26)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 IV. 논 의

##### 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

본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는 평균

39.99점(최대점 55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Lee(1993)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평균 40.26점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시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지지와 관심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시기는 대부분의 진로를 결정하는 한국의 교육 상황에 따른 대학입시의 중요한 준비시기이므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 집중적인 가족의 뒷받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평균 186.16점(최대점 256.00점), 최소값 108.00점, 최대값 240.00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평균 186.16점은 최대점 256.00점과는 다소 떨어진 결과이나 Ahn(1997)의 연구에서의 평균 160점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경기도 광명시 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안수강의 연구와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가 한국의 모든 청소년에 대한 자아정체감 수준의 일반화 문제에 대해 제한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평균에 비해 자아정체감이 높은 수준과 상대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낮은 수준의 청소년과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변수인 가족지지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점에 비해 평균점이 다소 낮은 결과는 고등학교시기는 완성된 자아정체감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임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실제로 정체성 성취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18세에서 21세 사이지만, 20세 청년의 16%만이 정체성 성취수준에 도달한다고 한(Cella, et al., 1987) 것에 비추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의 성취수준에 도달한 청소년이 적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적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가 가족지지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를 통한 가족지지는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정체성 성취를 격려하고 촉진하는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지지 행동에 있어,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청소년기 자녀가 정체성 탐색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폐쇄의 지위에 정착하게 할 확률이 크다. 반

대로 부모가 주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맡겨두는 허용적 태도는 정체성 혼미에 빠져 들게 할 위험이 높다(Bernared, 1981). 또한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고 납득하도록 설명하며, 공감을 주는 부모의 태도는 부정적 평가를 쉽게 내리는 제재적 행동보다 청소년기 자녀의 정체성 발달을 크게 촉진한다(Hauser & Bowlds, 1990).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정체성 성취가 높다(Song, 1993)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지지 뿐 만 아니라 가정의 풍토가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것에 비추어 자녀의 개성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동시에 존중하며 가족을 지지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한 가정풍토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는 학년, 종교, 경제상태, 출생순위, 부의 교육정도, 모의 교육정도, 부부관계, 가족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가족지지가 차이가 있었는데 2학년(42.22)이 1학년(38.85), 3학년(38.80)에 비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학입시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3학년은 부모의 관심이나 지지를 부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1학년은 2학년 보다 고등학교 생활이 상대적으로 덜 안정되어 2학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 보다 덜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2학년은 고등학교 생활에 안정되게 적응되는 시기이며 대학입시의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3학년 보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Lee(1993)의 연구와 같이 종교의 유무에 따라 가족지지 정도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43.28)가 없는 경우(35.6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단 종교를 제외한 종교의 교리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름다운 가정사역이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므로 가족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도와주고 지지하는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경제상태와 출생순위에 따라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는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대답한 대상자와 만이가 가장 높았다. 즉 경제상태가 부유할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어 가족에 대한 돌봄이나 지지가 소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 맏이가 다른 아이보다 부모로 받는 지지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부모가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았다. 이는 부모가 높은 교육을 받은 경우가 청소년에게 지지를 더 잘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가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은 긍정적인 교육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가 청소년의 발달과업에 따른 다양한 심리와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지식이 획득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자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았다. 이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정의 부족으로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제력을 길러주는데도 실패한다. 즉 자신이 부모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되며, 불안수준이 높고, 항상 긴장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Crockenberg & Litman, 1990).

대상자의 가족형태에서는 핵가족보다 대가족을 이루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의 경우 양친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부모의 역할 소홀에 대신하여 지지를 할 수 있는 대가족의 부재로 인해 가족이 많은 대가족보다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며, 또한 대가족은 개인적인 것보다 다른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건강한대가족 가정의 기초가 되므로 가족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 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은 종교, 경제상태, 출생순위, 부의 교육정도, 모의 교육정도, 부부관계, 가족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라 종교가 있는(201.52) 청소년이 종교가 없는(165.74) 청소년보다 자아정체감 수

준이 높았는데, Bang(1986), Park(1983)의 자아정체감과 종교와 관련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이 더욱 높다(Ahn, 1997)는 연구결과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신앙의 교리와 본질의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자의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대답한 경우와 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가 자아정체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Park(1990)의 연구에서 가정환경의 경제력과 월수입, 부모의 교육정도가 포함된 지위변인과 자아정체감과의 차이에서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대인관계 영역에서 높은 지위변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모든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과 일치하지 않는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통해 경제상태 요인과 부모의 교육정도 요인도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출생순위에서 맏이가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Park(1984)의 맏이가 높은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나타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맏이가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의 이유는 정확한 해답은 알 수 없으나 맏이에게 주어지는 부모의 기대와 정서적인 지지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부부관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경우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이론(Dignan, 1965)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한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동일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족형태에서는 대가족(234.33)이 핵가족(185.53)보다 자아정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족의 구성원인 대상자가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은 정확한 해답은 알 수 없지만 대가족의 긍정적인 다양한 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 5. 가족지지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 및 자아정체감 수준

대상자의 가족지지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을 파악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어머니인 대상자가 유의하게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

이 높았으며,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아버지인 대상자가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를 가장 신뢰하는 대상자가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은 것은 Dignan(1965)의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경우에 자아정체감이 높은 결과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자녀의 정체성에 비추어 신뢰를 하는 것은 애착과 수용,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상당수의 대상자(49.8%)가 어머니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 같이 모성에 대한 신뢰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형제(48.1%), 어머니(44.6%)순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대상자는 형제와 어머니에 비해 적은 비율(7.3%)이지만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은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 수준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직업과 관련된 사회생활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정서적지지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청소년 자신을 신뢰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대상자인 아버지를 통하여 동일시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족간호와 학교보건,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전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전시내에 있는 총 37개의 고등학교 중 2개의 학교를 무작위로 군집표집하여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로 1개 반씩 무작위로 표출하였다. 대상자는 남학생 120명, 여학생 113명으로 총 233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가족지지 도구로 Cobb(1976)이론에 근

거하여 Lee(1993)의 고등학생들에 맞게 수정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고, 본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0.87이다.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는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Sho(1975)가 한국 학생들에게 알맞게 번안 제작하여 검토·사용한 자아정체감 척도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의 평균은 39.99, 표준편차  $\pm 9.59$ , 최소값 26.00, 최대값 52.0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수준 평균은 186.16, 표준편차  $\pm 45.60$ , 최소값 108.00, 최대값 240.00으로 나타났다.

2) 가족지지 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r = .93, p = .00$ ) 상관관계가 있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학년( $F = 3.35, p = .04$ ), 종교( $t = 6.39, p = .00$ ), 경제상태( $F = 9.14, p = .00$ ), 출생순위( $F = 27.61, p = .00$ ), 부의 교육정도( $F = 23.17, p = .00$ ), 모의 교육정도( $F = 28.70, p = .00$ ), 부부관계( $F = 2657.03, p = .00$ ), 가족형태( $F = -9.65, p = .00$ )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종교( $t = 6.20, p = .00$ ), 경제상태( $F = 12.56, p = .00$ ), 출생순위( $F = 22.85, p = .00$ ), 부의 교육정도( $F = 10.37, p = .00$ ), 모의 교육정도( $F = 20.69, p = .00$ ), 부부관계( $F = 938.73, p = .00$ ), 가족형태( $F = -8.74, p = .00$ )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가족지지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를 검증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사람( $F = 3.08, p = .03$ ),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F = 5.85, p = .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상자의 가족지지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을 검증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사람( $F = 3.30, p = .02$ ),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F = 5.72, p = .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 것이다"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본다면,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가족지

지는 정체감 발달과정의 시기인 청소년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의 변인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목회간호사의 가족간호, 확대되어질 가정간호사의 가족간호와 학교보건, 더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대전지역의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향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인문계를 포함한 상업·공업계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반복연구와 비교연구와 같은 지속연구와 소년의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가족지지에 긍정적 변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간호사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간호를 위하여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간호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

- Allison, M. D., & Sabatelli, R. M.(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16.
- Ahn, S. K. (1997). *A comparative study on ego-identity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of Korea, Seoul.
- Bang, G. A. (1986).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level of self-identity of adolescents and their religios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of Korea, Pusan.
- Bernard, H. S. (1981).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review of some empirical findings. *Adolescences*, 16, 349-358.
- Blustien, D. L., Devenis, L. E., & Kin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 Cobb, S. (1976). "Presidential Address"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rockenberg, S. B.,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kson Erik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 Y.: W. W. Norton & Company, Inc.
- \_\_\_\_\_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 Y.: Norton.
- Hauser, S. T., & Bowlds, M. K. (1990).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 University Press.
- Josselson, R. (1988). *The embe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Lapsley, D. K., & Power, F. C.(Eds.), N. Y.: Springer Verlag, 109-129.
- Chung, Y. N. (1990).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self-identity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yo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H. (1993).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runaways and delinquenci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m, S. H. (1986). *A study of the performance of health-related activities and the concept of self of 1st and 2nd yea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S. M. (1994).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lie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Korea Institute of Youth Development (1994). *A study of the state of family guidance of adolescents and guiding strategies*. Korea Institute of Youth Development.
- K. N. A. (1992). *Community Nursing*.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 Lee, G. O. (1993). *The 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eagu.
- Lee, H. G. (1996).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Bobmunsa.
- Lee, J. C. (1997). *Directions of university student guidance for globalization, Directions of practice, hard challenge, rebounding direction*. Yongin: MyongJi university.
- Marcia, J. E. (1988). Common processes underlying ego identity, cognitive moral development, and individuation.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211-225. N. Y.: Springer Verlag.
- Park, A. C. (1984). *Search of Identity*. Seoul: Jungminsa.
- Park, Y. S. (1983).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identity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religios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ukMyong Women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W. S. (1990). *A study of family environment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sense of self-ident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yo University of Korea, seoul.
- Shin, Y. H. et al.(1996). Investigation of the necessity of parish nursing. *Central J Med*. 61(3), 217-224.
- Sho, B. Y. (1995). *Adolescence Psychology*. Seoul: Jungang-joksong.
- \_\_\_\_\_ (1975).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asp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sense of self-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eagu.
- Steinberg, I. (1990). *Interdependence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L.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41-358.
- W.H.O (1996). *Nursing Practice*.

- Abstract -

##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go Identity of Young People\*

Kim, Chung Nam\*\* · Kwon, Yun Hee\*\*\*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attemp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that young people receive and the level of Ego Identity that they develop. We started the present study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parish nurses with som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 for family and school nursing, as

\* This study was done by the Keimyung Univ. research fund for graduate students.

\*\* Keimyung University Faculty of Nursing

\*\*\* Keimyung University Master in Nursing

well as for community health care.

We conducted the present study during the period of October 15, 2001 through November 5, 2001.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Inmunge High School students chosen from a school in Daejon. The subject studen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each grade in that school. The numbers of subjects selected were 120 boys and 113 girls (total: 233).

The research tool that we used to measure perceived family support received by students was one that Ga Eon Lee revised for high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Cobb's theory. To measure the subject students' Ego Identity level we used Bong Yon Sho's "Ego Identity Scale", that he revised from Dignan's "Ego Identity Scale"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0.0 program using statistics of frequencies,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1) The mean of family support that the subject students feel that they received was 39.99 on the family support scale, and the mean of the students on the Ego Identity scale was 186.16.

2) The support that the subjects received from their own famil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ir Ego Identity ( $r=.93$ ,  $p=.00$ ).

3) Various factor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family support perceived by the subjects: the subject's grade ( $F=3.35$ ,  $p=.04$ ), the subject's religion ( $t=6.39$ ,  $p=.00$ ), the family's economic situation ( $F=9.14$ ,  $p=.00$ ), the birth order ( $F=27.61$ ,  $p=.00$ ), the father's education ( $F=23.17$ ,  $p=.00$ ), the mother's education ( $F=28.70$ ,  $p=.00$ ), parental relationship ( $F=2657.03$ ,  $p=.00$ ), and the structure of the family ( $F=-9.65$ ,  $p=.00$ ).

4) Various factor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the subject's Ego Identity: the subjects religion ( $t=6.20$ ,  $p=.00$ ), the family's economic situation ( $F=12.56$ ,  $p=.00$ ), the birth order ( $F=22.85$ ,  $p=.00$ ), the father's education ( $F=10.37$ ,  $p=.00$ ), the mother's education ( $F=20.69$ ,  $p=.00$ ), parental relationship ( $F=938.73$ ,  $p=.00$ ), and the structure of the family ( $F=-8.74$ ,  $p=.00$ ).

5) Analyzing sources of support within the family, family members whom the subjects trust most ( $F=3.08$ ,  $p=.03$ ) and family members to whom they talk most ( $F=5.85$ ,  $p=.00$ ) showe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Analyzing sources of support within the family that affect the level of the subjects' Ego Identity, family members whom the subjects trust most ( $F=3.30$ ,  $p=.02$ ) and family members to whom they talk most also showe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Key words : Family support, Ego identity